

# 류현진, 양키스전 피홈런 3방 '혼썰'... 팀은 짜릿 역전승

선발등판해 5이닝 5실점

평균자책점 2.51→3.19

토론토, 양키스에 12:7승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뉴욕 양키스의 강타선에 혼썰이 났다.

류현진은 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렌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6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다.

7월3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4½이닝)에 이은 올 시즌 두 번째 5실점 경기다. 2.51이던 평균자책점은 3.19로 치솟았다. 총 투구수 98개 중 57개가 스트라이크로 기록됐다. 삼진 5개를 잡는 동안 볼넷 2개를 빼앗겼다.

류현진은 2-5로 뒤진 6회초 강판됐지만 팀이 12-7 역전승을 거두면서 패배를 면했다. 시즌 성적 3승1패는 그대로 유지됐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다. 1회초 첫 타자 디제이 르메유를 1루 땅볼로 가볍게 요리한 류현진은 루크 보이트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카운트를 잡으려던 89.9마일(약 144.6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이 통타 당했다.

후속 타자 애런 히스와의 승부도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빠른 공이 홈런으로 이어졌다. 류현진이 백투백 홈런을 내준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클린트 프레이저를 3루수 실책으로 내보낸 류현진은 글레이버 토레스와 미구엘 안두하를 각각 삼진과 3루 땅볼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은 2회 들어 안정을 찾았다. 브렛 가드너와 카일 히카시오카를 공 4개로 돌려세우고

빠르게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았다.

테리오 에스트라다의 타석 때 2루수 조나단 빌라르의 실책이 나왔지만 류현진은 르메유에게 유격수 땅볼을 이끌어내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슈아냈다.

류현진은 3회 1사 후 다시 만난 히스에게 연거푸 볼 4개를 던졌다. 전 타석 홈런의 여파 때문인지 다소 피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4번 타자 프레이저에게 2루수 방면 병살타를 이끌어내 추가 진투를 막았다.

타자들이 동점을 만들어주면서 페이스를 회복하는 듯 했던 류현진은 4회 세 번째 홈런을 맞았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두하에게 던진 슬라이더가 방망이에 제대로 걸렸다. 스코어는 2-3이 됐다.

류현진은 5회에 무너졌다. 1사 후 르메유의 내야 안타와 보이트의 좌전 안타로 1,2루 위기에 몰렸다. 걸끄러운 타자 히스를 포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 급한 불을 끄는 듯 했지만 프레이저를 넘지 못했다.

프레이저의 타구는 좌익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로 연결됐다. 볼카운트 2B-2S에서 체인업 승부구로 택했지만 프레이저가 제대로 받아쳤다.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으면서 류현진의 실점은 '5'까지 늘었다.

토레스의 볼넷으로 다시 1,3루에 처한 류현진은 안두하를 삼진으로 제압, 길었던 5회를 끝냈다.

피홈런을 3개나 얻어 맞은 류현진은 팀이 2-5로 뒤진 6회초 마운드를 내려갔다.

그러나 토론토 타자들의 도움으로 패배는 기록되지 않았다.

토론토는 2-6으로 끌려가던 6회말 경기를 뒤집었다. 볼넷 2개와 안타로 1사 만루를 만든 토론토는 로우디 텔레스의 타구를 양키스 1루수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7일(현지시간) 미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1회 루크 보이트와 애런 히스에게 연속 홈런을 허용하며 1이닝 2피안타 1K 2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가 놓치면서 1점을 만회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루아데스 구리엘 주니어의 연속 안타로 6-6 동점을 만든 토론토는 트레비스 쇼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8-6 역전에 성공했다. 데니 잰슨의 만루포로 12-6까지 격차를 벌

렸다. 분위기를 완전히 토론토 쪽으로 가져오는 한 방이었다. 토론토는 마지막 수비 때 1점을 빼앗겼으나 승패에는 지장이 없었다. 잰슨이 깜짝 만루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텔레스와 게레로 주니어, 쇼는 2타점 경기를 펼쳤다.

류현진에 이어 등판해 6회를 1이닝 1실점으로 책임진 선 레이드-폴리가 행운의 구원승을 가져갔다. 2연승에 성공한 토론토는 23승18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2위를 사수했다.

뉴시스



## KT 소형준, KBO리그 8월 MVP 선정

고졸 신인 데뷔 첫 해 선정 역대 두 번째... '순수 고졸 신인'으로는 처음

KT 위즈 소형준(19)이 8월 최고의 선수 영광을 안았다.

KBO는 8일 "KBO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2020 신한은행 홈 KBO리그 8월 MVP에 KT 소형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소형준은 기자단 투표(30표 중 22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총점 43.63점을 획득, 총점 35.07점을 얻은 NC 다이노스 나성범을 제치고 데뷔 첫 해 KBO리그 월간 MVP에 이름을 올렸다.

소형준은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고졸 신인이 데뷔 첫 해 월간 MVP로 선정되는 대기록도 작성했다.

앞서 고졸 신인의 KBO 월간 MVP 수상은 1983년 유두열이 유일했다. 유두열은 당시 실업야구단에서 선수 활동 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직후 프로 데

뷔 첫 해인 '순수 고졸 신인'이라는 점에서 소형준의 수상이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소형준은 8월 한 달 간 28%이닝을 던지며 자책점은 단 5점만 내줬다. 이 기간 리그에서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1.57)을 기록하며 5경기에서 4승을 챙겨 다승 부문에서도 공동 1위에 올랐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소형준은 생애 첫 KBO 리그 월간 MVP 후보에 이름을 올리자마자 수상까지 이뤄냈다.

8월 호투로 올 시즌 신인왕 경쟁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8월 MVP에 선정된 소형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소형준의 모교인 구리인창중학교에 1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뉴시스

## 정현, ATP 모네타 체코오픈 챌린저 1회전 탈락

정현(24·한국체대·144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모네타 체코오픈 챌린저대회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8일(한국시간) 체코 프르스테요프에서 열린 대회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요제프 코발리크(28·슬로바키아·123위)에 0-2(6-7(5-7) 2-6)로 졌다.

올해 4차례 챌린저 대회에 나선 정현은

모두 1회전에서 탈락해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챌린저 대회는 투어보다 한 등급 아래로, 세계랭킹 100위 이하 선수들이 주로 출전한다.

체코에서 3주 연속 챌린저 대회를 치른 정현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 21일 시작되는 프랑스오픈 단식 예선을 준비한다.

뉴시스

## 박성현, 10개월 만에 LPGA 복귀... "경기력 향상에 중점"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 출격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 불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숨을 골랐던 박성현(27·솔레이)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복귀한다.

박성현은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ANA인스퍼레이션에 출격한다.

박성현이 LPGA 투어 대회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본의 아닌 긴 휴식을 취한 박성현은 이번 대회를 통해 투어

활동을 재개한다.

박성현은 8일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오랜만에 출전하는 대회인만큼 긴장감이 매우 크다. 어깨 근육치료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대회 출전이 어려워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팬들이 경기를 많이 기다리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보았다.

박성현 뿐 아니라 박인비(32·KB금융그룹), 김세영(27·미래에셋), 전인지(26·KB금융그룹), 양희영(31·우리금융그룹) 등 총 12명의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 우승을 향해 도전한다. 박인비는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이 대회 패권을 노린다.

다만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25·솔레이)은 출전을 포기했다.



당초 ANA 인스퍼레이션은 4월에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밀렸다. 총상금 310만 달러(약 36억8000만원), 우승상금 46만 5000달러(약 5억5000만원)다.

## '축구神 돌아왔다'...잔류 선언한 메시

훈련장 복귀...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개인 훈련'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잔류를 선언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훈련장으로 복귀했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의 복귀 소식을 전했다.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도 "메시가 돌아왔다(Leo Messi is back!)"라는 글과 함께 메시의 훈련 사진이 공개됐다.

스페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승용차를 타고 훈련 예정 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 훈련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선수단과 떨어져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

이적설에 휘말렸던 메시는 지난달 31일 시작한 프리시즌 훈련에 불참한 채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잔류 결정하면서 이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혼자 훈련을 치러야 한다.

본격적인 복귀를 준비 중인 메시의 공식전은 오는 28일 예정된 비아레알과의 정규리그



3라운드 홈 경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메시는 지난달 26일 구단에 이적용 요청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7억 유로(약 9850억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과 계약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대립하다 메시가 최종적으로 잔류를 결정했다.

다만 메시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6월30일 전까지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불완전 동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황선홍 "팬 기대 못미처"

K리그2 대전 감독 사임

승격 목표로 투자...3위 머물러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대전하나시티즌이 8일 황선홍 감독이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대전 구단은 황선홍 감독이 지난 6일 부천FC와의 홈 경기를 마친 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은 "팬들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럽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힘써주신 구단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사임의 변을 전했다.

대전은 차기 감독 선임 전까지 강철 수석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길 예정이다. 대전은 오는 13일 제주유나이티드와 19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시즌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재창단한 대전은 창단 첫째 승격을 목표로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선두 경쟁에서 추종하며 제주(승점35), 수원FC(승점33)에 밀려 3위(승점30)에 처해 있다.

제주와 승점 5점 차이지만, 투자보다 저조한 성적을 이유로 황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2부리그는 1위 팀이 K리그1으로 승격한다. 그리고 2-4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팀을 거린다.